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에 대한 재평가

이승만 사상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유나영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국제정치 전공

na0yoo@hanmail.net

I. 머리말

II. 이승만의 사상과 국가구상

III. 이승만의 방미외교 배경

IV. 방미외교와 이승만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만의 방미외교는 사실상 해방 후부터 남북한 정부가 각각 들어서기 전까지 당시 유력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행해진 개인외교로서 그 평가가치가 매우 크다.¹⁾

이승만의 방미외교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체적으로 단독정부 수립평가와 연결되고,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설명한 연구이다.²⁾ 이 연구들은 방미외교를 국내정치적 기반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승만이 권력을 잡은 단독정부 수립이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승만을 분단의 원인제공자라고 하며 방미외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이승만의 방미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연구이다.³⁾ 이들은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방미외교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내정치적으로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설명한 연구들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 중간발표회에서 귀한 논평을 해주신 이은선 교수님과 박명수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1) 이러한 외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승만이 30년 이상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많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쪽의 유력 지도자였던 김일성이나 박헌영은 소련에 종속적 위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를 행할 수 없었다. 종속적 위치라는 것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도자로 낙점되었다는 점, 박헌영 역시 타치문제를 두고 소련의 입김으로 탄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中央日報社, 1992a);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中央日報社, 1992b);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한울, 2008); 가브리엘 코르토크프 저, 어건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1)』(동아일보사, 1992)를 참조할 것.
- 2) 정용욱,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와 미국의 대응」, 『역사비평』 제30권(1995), 309-332쪽;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역사비평사, 2005), 627-655쪽;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역사비평』 제32호(1996), 271-275쪽, 252-288쪽;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한길사, 1995), 380-382쪽.
- 3) 유명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유명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504-506쪽; 이정식, 「건국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유명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출판부, 2006a), 54-61쪽; 이춘근,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글마당, 2012), 58-59쪽; 김영호,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2』(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5), 11-19쪽;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6권(제3부 어떤 나라를 세울까 1945-1950(I)) (조선뉴스프레스, 2015), 725-763쪽.

북한의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⁴⁾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방미외교를 다룬 연구들 역시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그의 사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지 않았다. 방미외교의 중요한 목적을 한반도의 반만이 라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동의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두 범주의 연구 모두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해방 정국의 시간적 범위 안에서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방미외교는 이승만의 사상이 형성된 시기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보아야 외교의 전체적인 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방미외교의 평가에 대해서는 후자의 입장을 따르나, 이 연구들에 덧붙여 방미외교는 축적된 이승만의 사상과 국가구상이 담겨 있는 외교였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이승만의 사상을 통해 그의 국가구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해방 후 국내외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승만의 방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사상, 국가구상과 함께 그의 방미외교를 고찰하고 총체적 평가를 하겠다. 이 글의 주된 시간적 배경은 이승만의 핵심사상이 자리 잡은 청년기와 해방 후부터 도미외교까지의 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II. 이승만의 사상과 국가구상

이승만은 구한말에 태어나 인생 대부분의 시기를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인물이다. 이런 그가 원했던 국가는 그의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승만이 방미외교를 하게 된 근간으로서의 그의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4) 이 연구들의 또 다른 한계는 이승만의 권력의지를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권력의지는 상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쪽에서 정치인으로서 이승만이 권력투쟁을 했다면, 북쪽의 경우 김일성도 박헌영이나 소련파와 권력투쟁을 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을 잡은 점은 김일성이 소련에 의해 낙점되어 비교적 쉽게 권력을 쟁취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되나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1. 자주독립사상

이승만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 자주독립사상의 형성은 그의 청년기와 큰 관련이 있다.⁵⁾ 특히 그가 스무 살이 되던 1895년 무렵은 조선이 국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은 시기이다. 청일전쟁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은 조선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무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들로서 이것은 당시 국가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제군주제의 모순점을 깨닫게 되었고, 근대적 사회단체인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개화파로서 고국의 개화를 위해 힘쓰려 했다.⁶⁾ 이승만은 이 활동을 통해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배재학당 졸업식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제로 한 영문 연설을 통해 당시 한성 외교가의 주목을 받게 된다.⁷⁾

이후 독립협회 활동에서 이승만은 조선의 친러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그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 수립을 도모했다는 죄명으로 1899년 투옥되어 5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다 1904년 석방된다.⁸⁾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 『독립정신』은 망운의 조국을 위한 그의 충심이 잘 나와 있는 저술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는 또다시 자주독립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였다.⁹⁾

이승만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자주적인 독립국임을 밝혔다.¹⁰⁾ 대한

5) 이승만의 생애는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 『이승만』(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생애·사상·업적의 새로운 조명』(일조각, 2013); 이한우,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역사공간, 2010); 정병준(2005), 앞의 책을 참조할 것. 또한 그의 연보는 오영섭, 『이승만 연보』(2012)를 참조할 것(syngmanhee.yonsei.ac.kr/files/chronology.pdf, 검색일: 2017년 7월 31일).

6) 특히 이 독립협회의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은 개화파들이 당시 고국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창간한 언론지였고, 이승만은 한 사실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비참함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독립이 자주적으로 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리승만, 「남이 시켜준 「자주독립」, 《독립신문》, 1897년 7월 27일자.

7) 김용직,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77-78쪽.

8)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40-83쪽; 차상철, 「외교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156쪽.

9) 이승만의 자주독립사상은 송복, 「이승만의 저술 활동과 역사적 의미」,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7-11쪽, 22-23쪽; 오영섭, 『이승만의 「청일전기」 번역·간행과 자주독립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29-68쪽도 참조할 것.

은 단군 이래로 당당한 독립강국이라고 주장하며, 비록 고구려 때 수양제의 침입이 있었고,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이 있었으나 각각 연개소문과 고려 군사에 의해 이들을 무찔렀음을 강조한다. 이승만은 “대개 한 사람이 나 한 나라이나 제가 제 일을 하는 것을 자주”라고 말하며, 따로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은 것을 독립이라고 말하며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말하였다.¹¹⁾ 이승만은 이 글을 통해 개인도 스스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나라에서의 이러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두어 정치를 마련하여 법률을 정하는 것이 다 사람의 일신상 자주 권리를 보호코자 함이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약한 자의 목숨은 강한 자의 고기가 될 것이요 어린아이 가진 떡은 어른의 음식이 될지니 제 몸의 딸린 권리를 어찌 지탱하리오”라는 것도 역시 국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²⁾

이렇게 이승만은 청년기의 활동과 수감생활 속에서 그의 핵심사상인 자주독립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승만이 출감한 후 결국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었는데, 이승만은 이 사상을 근간으로 해방 전까지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힘썼고 이후 자주 독립국 건설에 매진하게 된다. 또한 방미외교에서도 자주독립국 수립을 강조한다.

2. 정치·경제사상

국가의 자주독립을 중요시한 그가 원했던 정치체제는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이승만이 청년기에 받은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스무살이 되던 해에 배재학당에 들어가 서구식 교육을 배우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된다.

올리버의 저서에서 잘 나와 있듯이 당시 이승만에게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는 큰 자극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호를 갖는다’, 혹은 ‘모든 사람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은 군주제와 신분제밖에 모르던 이승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¹³⁾ 또한 민주주의라는 방식도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군주제

10) 이승만, 「대한의 독립내력」, 리승만, 『독립정신』(정몽출판사, 1993), 133-137쪽.

11) 이승만, 「자주 권리의 긴중합」, 리승만(1993), 위의 책, 55-59쪽.

12) 리승만, 『독립정신』(정몽출판사, 1993), 58쪽.

방식과 달리 그것은 구성원들이 다수결로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였기 때문이다.¹⁴⁾ 이승만은 자연스럽게 이 제도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실제 독립협회 활동을 하며 민주주의적 합의 도출방식의 성과를 체험한 일은 훗날 그의 정치체제 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이승만은 체포된 협회 간부 열일곱 명을 구명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만민공동회를 통한 지속적인 석방 요구로 관철시켰던 것이다. 그는 이 일화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했다.¹⁵⁾ 이러한 그의 자유민주주의 지향은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제1차 한인의회’에서 채택했던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결의문에 추후 세워질 정부가 미국의 정체를 모델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맥락이 이어진다.¹⁶⁾

이승만은 이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몸에 익혔고 그러한 사고를 더욱더 굳히게 되었다.¹⁷⁾ 1942년 11월 말, 중국 외교부 차관 빅터후에게 쓴 답변서 역시 그의 정치체제 지향을 잘 말해준다. 그는 한국인들은 대서양 현장의 자유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싸우고 있고, 해방이 되면 자유선거로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극동에서 완중국 역할을 하며 동양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13) 이주영,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김&정, 2008), 44쪽.

14) 로버트 울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41쪽.

15) 그가 민주주의 체제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 인식은 상기한 『독립정신』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승만은 이 글에서 훗날 그가 선호한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인군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결코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관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섬기는 것을 민주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이 이 제도를 가장 선미한 것으로 칭찬 것은 그가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가 우수하다는 인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승만, 「세 가지 정치구별」, 리승만(1993), 앞의 책, 78쪽). 물론 이승만은 이 제도가 곧바로 조선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먼저 그 안 구성원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더욱 미국식 민주정치체제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이승만, 「백성의 마음이 먼저 자유할 일」, 리승만(1993), 앞의 책, 112-130쪽).

16) 이 결의문은 유영익, 「3.1 운동 후 서재필의 신대한(新大韓) 건국 구상」, 서재필기념회 편, 『서재필과 그 시대』(서재필기념회, 2003), 371-374쪽에 실려 있다. 상기 부분은 371쪽.

17) 특히 애연적 저서로 알려져 있는 *Japan inside out*을 통해서도 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관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전체주의를 이와 대조하여 분석하였다(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New York: London and Edinburgh, 1941). 또한 그의 국제정치관에 대해서는 김영호,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제1호(2016), 5-32쪽을 참조할 것.

말한다.¹⁸⁾ 이러한 경험 등을 기반으로 이승만은 해방 후 입헌주의와 대의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위해 힘쓰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생각했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했다.¹⁹⁾ 그가 이 경제체제를 지향했던 것은 상기한 『독립정신』에도 잘 나와 있다.²⁰⁾ 그는 이 글을 통해 콜럼버스 이후부터 각국 사람들이 서로 왕래 교섭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오늘날의 부강 문명하다는 국가들이 서로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세력이 청나라, 일본, 대만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 세 국가 중에 대한만 나중에 통상을 했다고 말하며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시행되어야 했음을 말하고 있다.²¹⁾ 그러나 그가 자유통상을 강조했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만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유로운 경제통상을 선호했지만 어느 정도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산권을 중요시했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권리를 찾는다면 폐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의 이득도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²²⁾

이러한 그의 사상은 해방 후와 방미외교 시 나타난 국가구상과 연결된다. 후술되겠지만, 이에 따라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쉽지 않게 되자, 정읍발언 후 방미외교를 했던 것이다.

18) 이주영(2008), 앞의 책, 96쪽.

19) 경제체제는 근대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적소유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시장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지만, 계획경제에서는 시장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대체된다(최상오, 『이승만의 경제구상』, 최상오·홍선표 외,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71-72쪽). 또한 이후 이승만은 헌법 개정 전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농지개혁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 북한과 경제체제상 명백한 차이를 보였고, 이 개혁은 지주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남한에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재호,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경제적 기초와 근대적 재정체도의 성립」, 김용직 편,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체제 구축』(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17-126쪽; 김학은, 『이승만의 정치·경제사상: 1899-1948』(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을 참조할 것.

20) 이승만, 「각국과 상통하는 관계」, 리승만(1993), 앞의 책, 41-44쪽.

21) 리승만(1993), 앞의 책, 41-42쪽.

22) 이승만, 「자유권리의 방한」, 리승만(1993), 앞의 책, 132쪽. 또한 최상오·홍선표 외(2010), 앞의 책, 81-82쪽도 참조할 것.

3. 반공사상

이승만이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상기한 것처럼 이승만은 독립협회 활동을 하며 반러성향을 갖게 되었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팽창성향에 주목하였고 과거 러시아가 주변국의 분할을 시도했던 사건을 경계하였다.²³⁾ 실제로 해방공간에서 그는 소련과 대립하였는데 당시 폴란드의 상황을 예로 들며 소련세력의 유입을 우려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승만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러시아가 아직도 예전의 전제정치를 쓰고 있다고 하거나, 그들의 정치는 “남의 토지를 빼앗기로 위주하매 혹 기회를 타서 계책을 부리거나, [...]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려 한 조각 땅이라도 저의 세력에 넣으면 영원히 제 것을 만들어 장차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커지나니……”라고 쓰며,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었다.²⁴⁾

제정러시아의 붕괴 후 이승만의 반러사상은 반공의식으로 바뀌었다.²⁵⁾ 이승만은 이 시기부터 공산주의를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라고 간주하였고, 이 이념을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²⁶⁾ 이승만이 마흔아홉 살 되던 1923년 태평양 잡지에 쓴 ‘공산당의 당부당’은 그의 공산당에 대한 생각이 잘 나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²⁷⁾ 그는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본가, 지식계급, 종교단체, 더 나아가 정부와 군사, 그리고 국가사상도 없이 하자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나 군사, 그리고 국가사상의 부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그들도 잘 알면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유영익은 그의 반공사상은 1933년 외교차 모스크바를 잠시 방문했을 때, 러시아 백성의 처참한 생활을 보고 더욱 확실해졌다고 분석한다.²⁸⁾

23) 이승만, 「러시아 정치내력」, 리승만(1993), 앞의 책, 144쪽.

24) 이승만, 「세 가지 정치구별」, 리승만(1993), 앞의 책, 75-76쪽; 이승만, 「잡으 을미 후 일·러시아」, 리승만(1993), 앞의 책, 194-195쪽.

25)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중앙일보사, 1996), 221쪽.

26) 「장석윤 증언(1979년 3월 22일)」,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중앙일보사, 1996), 222쪽에서 재인용.

27) 이승만, 「공산당의 당부당」, 『태평양잡지』 제31호(1923. 3.).

28) 유영익(1996), 앞의 책, 221쪽. 이승만은 다음의 글을 통해 그를 만난 러시아인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당은 자본가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승만이 보기에 이것은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었고, 이 방문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확증한 일이었다.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이제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점차 변한 것이다. 이렇게 그의 청년시절부터 형성된 반러주의와 이후 강력한 반공사상은 그가 해방 후 공산당, 그리고 소련과 대립하게 된 강한 원동력이 된다. 이승만은 소련이 계급투쟁과 해방을 내세우는 국제공산주의를 주장하며, 이와 함께 소련의 영토확장 등 국가이익을 위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²⁹⁾ 소련은 결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안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정치체제로서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후술될 방미의 원인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4.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

마지막으로 그의 중요한 사상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이다.³⁰⁾ 이승만은 1904년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때였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 거세지자, 이승만은 고종의 밀사로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에 의거, 일본의 야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를 만나게 된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라는 의례적인 대답에도 이승만, 동행한 윤병구는 마음이 매우 들떠 있었다고 한다.³¹⁾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그러한 시도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은 1924년 존스홉킨스 대학의 외교사가 타일러 데닛(Tyler Dennett)이 공개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증명해주고 있다.³²⁾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당시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이 길가에서 굶어 죽는 모습을 목도했다는 일화도 소개한다. 이승만, 『일민주의정신과 민족운동』, 이승만, 『일민주의개술』(一民主義普及會, 1954), 8-16쪽. 특히 9-10쪽.

29) 냉전 초기 소련의 국가전략은 Vojtech Mastny, *The Cold War and Soviet insecurity: the Stalin year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Vladislav M. Zubok and Konstantin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9-77을 참조할 것.

30) 김영호(2016), 앞의 논문, 123-149쪽; 차상철(2006), 앞의 논문, 158-159쪽.

31)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101쪽, 84-107쪽.

32)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위의 책, 86쪽.

이승만의 면담 전에 이미 루스벨트는 테프트 육군장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당시 가쓰라 다로 총리와 밀약을 체결하여 조선에서의 일본 우위권을 보장해주고, 대신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권한을 보장받았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러한 일본의 조선 지배권에 러시아의 승인도 중재하였다. 이후 1906년 루스벨트는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 이승만은 그의 저서에서 이 밀약을 거론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승만이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그뿐 아니라 이승만은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있었던 워싱턴 군비축소 회의에 파견될 한국대표단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이 회의의 참가허용과 한국 독립을 위한 청원서를 당시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과 호흡을 맞춘 미국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³⁴⁾ 비록 이승만은 이 참가 실패가 우선적으로 한국대표단의 준비부족에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차상철의 분석대로 설사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³⁵⁾

이러한 힘의 논리인식과 함께 이승만은 국제정치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국제여론을 이용한 외교독립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상기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을 가졌다는 주장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승만은 도미한 후 국제법 분야의 전공과목들을 수강하고,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미국의 중립법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를 국제정치에서 법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상주의 성향의 인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독립론 역시 그가 국제무대에서 힘의 논리를 깨닫고 미국의 힘을 이용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1차 방편으로서의 전략이었다.

33) Rhee, Syngman(1941), 앞의 책, 171쪽. 또한 김영호(2016), 앞의 논문, 9-10쪽도 참조할 것.

34) 이러한 일화는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410-421쪽. 더 자세한 워싱턴 시기 이승만의 활동은 김명섭·김정민, 「워싱턴회의 시기 이승만의 외교활동과 신문 스크랩, 1921-1922」,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2017), 175-198쪽을 참조할 것.

35) 이승만의 이 지적은 《신한민보》, 1922년 1월 19일자(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sh_1922_01_19_v0002_0070, 검색일: 2017년 8월 1일), 차상철의 분석은 차상철(2006), 앞의 논문, 158-159쪽을 참조할 것.

이미 이승만은 구한말부터 신문발행을 통해 정부견제뿐 아니라 부당한 이권 요구의 외세에 대한 정부의 굴복을 막았던 경험이 있었다.³⁶⁾ 또한 일본의 국제여론을 이용하는 힘에 의해 한반도에 대한 세계여론이 통제되고 있음을 느꼈던 일화도 이승만에게 세계여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³⁷⁾ 이승만이 일본 다이쇼 천황에게 ‘즉각적 침략 중지와 한국 독립 보장을 권고한 공개서한’을 보낸 일도 구미 언론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확산의 목적을 가진 일이었다.³⁸⁾ 결국 이승만은 여러 사건을 통해 현실주의적 용미(用美)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³⁹⁾

이후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에 근거한 이승만의 노력은 계속된다.⁴⁰⁾ 그리고 이것은 해방 후 방미외교에서 미국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여론이 반영되는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올리려 한 활동과 연결된다. 특히 이승만은 강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체제인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그가 가진 자주독립,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반공,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은 해방 후 그의 국가구상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며, 방미외교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해방 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36) 이정식,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배재대학교출판부, 2005), 58-59쪽.

37) Rhee, Syngman(1941), 앞의 책, 8-9쪽; 장규식, 『『한국교회법막』에 나타난 이승만의 기독교입국과 외교독립 구상』,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 인식』(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69-170쪽.

38) 김용삼, 『대한민국 건국의 기획자들: 이승만 인맥을 중심으로 본 건국 전후의 비화(秘話)』(백년동안, 2015), 320쪽.

39) 차상철(2006), 앞의 논문, 160-161쪽. 또한 이후 그가 농담 삼아 했다는 “살다보니 국제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승만이 점차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128쪽).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Syngman Rhee,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Seoul: Kwanksa, 2004), 이 문헌에 대한 분석은 최정수, 「이승만의 『미국의 영향하에 성립된 중립론』과 외교독립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01-143쪽을 참조할 것.

40) 이승만은 1941년 6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를 지속적으로 행한다(차상철(2006), 위의 논문, 159쪽). 또한 광복 직전인 1945년 4월 20일 미국에 서한을 보내며 임시정부의 인정과 유엔참석 허용을 요청했다.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April 20, 1945),” *FRUS* 1945, 6, pp. 1027-1028.

III. 이승만의 방미외교 배경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방미하게 된 1946년 12월까지 한반도의 상황이 자주독립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해방은 국제정세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한반도의 운명은 해방의 주역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자주독립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국내정파들과의 갈등도 이승만의 행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이 부분에서는 방미 전까지의 국제적·국내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미소냉전과 멀어진 자주독립의 길

연합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함께 치른 미국과 소련이지만, 그 갈등은 이미 루스벨트 사후부터 점증되고 있었다. 대소 유화정책을 펼친 루스벨트와 다르게 트루먼은 강한 반공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대소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신뢰를 보였다.⁴¹⁾ 특히 트루먼이 대표적인 대소 강경론자인 케난의 주장을 신뢰했다는 것은 이후 미소관계가 대립국면을 보일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⁴²⁾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시기인 1945년 4월, 케난은 스탈린과 헐리 대사의 인터뷰 분석보고서에서 ‘소련은 최소의 책임을 지면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는 정책을 펼 것이고, 여러 지역에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극동에서도 미국이 러시아에게 과도히 의지한다면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한다.’⁴³⁾ 소련 역시 이러한 트루먼 행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주미 소련대사였던 노비코프는 루스벨트의 죽음이 미국 대소정책의 전환점이었다고

41) 예르긴은 대소 협력론자들의 입장을 “알타원리(Yalta Axioms)”로, 대소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리가원리(Riga Axioms)”라고 불렀는데, 리가원리의 특징은 소련과 공존 가능성을 부인하고 소련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무자비한 이념전쟁을 시도하는 혁명국가로 본다는 것이다.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Boston: Houghton Mifflin, 1977), p. 11.

42) 케난의 소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George Frost Kennan, *Memoirs(1925-1950)*(Boston: Little, Brown, 1967), pp. 133-134를 참조할 것.

43)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 1(New York: A Signet Book, 1955), pp. 100-101.

말했고, 1945년 4월 15일 트루먼의 첫 의회연설을 미국의 세계패권 정책 선언으로 파악하였다.⁴⁴⁾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들 관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트루먼은 일본에 핵을 투하하였고, 일본을 단독점령하면서 미소의 대립은 더욱 커졌다.⁴⁵⁾

이듬해의 국제정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위성국화가 본격화된 1946년 2월 케난은 미국 행정부에 한 전문을 전달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미국 대소 봉쇄정책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다는 점과 이 시기의 미소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⁴⁶⁾ 케난은 이 전문을 통해 소련은 늘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부강한 국가들 속에서 항상 안보의 불안을 느꼈다고 분석하였다.⁴⁷⁾ 그리고 이 때문에 소련은 늘 군사력을 강조하며, 외부세계를 적으로 상정하여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념을 사용하여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케난은 소련의 정책은 식민지역이나 속국의 국민들이 서구와의 접촉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힘의 공백상태가 생기고, 바로 이때 공산주의의 침투가 용이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케난은 소련이 신탁통치협정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것이 소련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한 국가들에서 서구의 영향력을 저지시키고, 그들의 내부를 더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⁴⁸⁾ 이것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해볼 수 있다. 그들은 임시정부에 참여하려면 공식적인 신탁 통치구도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압박하면서 국내 정파들을 사분오열시켰다. 이 탁치 논쟁으로 많은 국민이 미국에 적대적 감정을 보였는데, 케난의 분석을 대입하면 그 빈자리에 소련은 공산주의를 이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946년 3월 한반도에서 개최된 미소공위는 임시정부에 참여할 인사는 탁치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소련 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결국 5월 8일 무기휴회에 들어갔고, 정국은

44) Scott Parrish, "A DIPLOMAT REPORTS," *CWIHP Bulletin* Issue. 1(Spring 1992), p. 21.

45) 이정식, 「스탈린의 한반도정책, 1945」,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b), 178-214쪽.

46) Kennan, "Excerpts from Telegraphic Message from Moscow of February 22, 1946," 이 전문은 George Frost Kennan(1967), 앞의 책, 547-559쪽에 수록되어 있다.

47) George Frost Kennan(1967), 위의 책, 549-550쪽.

48) George Frost Kennan(1967), 위의 책, 553쪽.

더욱 혼란스러워졌다.⁴⁹⁾

또한 1946년 9월 소련의 워싱턴 주재대사 노비코프 보고서는 미소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⁰⁾ 보고서에서 노비코프가 미국의 외교정책은 독점 자본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표현한 점은 소련이 지극히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개념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노비코프는 트루먼의 군사력 확산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것을 앞의 케난의 보고서와 함께 바라보면 이승만이 바라는 자주독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가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서로 부정적 인식의 양국이 한반도에서 타협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미국의 대소정책이 완전히 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소공위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기조는 유지되었다.

2. 국내 상황과 멀어져가는 이승만의 국가구상 실현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33년 만에 해방된 고국에 도착하였다. 다음 날 미군정청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니 감개무량하다. [...] 우리의 할 일이 지극히 크다. 이 일을 잘 해내고 못 해내는 것이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렸다. 밖에 사람들 세계각국을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서 알고자 하는 점은 4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압박과 친대를 받아 오던 조선민족이 과연 저이들끼리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세워 나갈 수 있나 없나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내가 조선에 와서 미국사람들(군정청의 간부들)과 대해보니 그의 염원하는 바는 조선민족이 어서 빨리 한덩어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다. 왜그러나 하면 여기있는 미국사람들은 모두 하루라도 속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⁵¹⁾

이승만은 이 회견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49) 송남현, 『解放三年史(1)』(가치, 1985), 324쪽.

50) academic.brooklyn.cuny.edu/history/johnson/novikov.htm(검색일: 2017년 8월 6일)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51) 《매일신보》, 《자유신문》, 1945년 10월 17-18일자(db.history.go.kr/id/dh_001_1945_1_0_16_0060, 검색일: 2017년 8월 1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타국 사람들은 우리의 자주능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견을 통해 이승만의 미군정에 대한 태도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이승만은 미국의 한반도 통일의지를 믿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유가 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고국으로 귀환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에서 이승만은 지극히 현실주의적 태도로 미군정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이 회견 말미에 자신의 귀국에 도움을 준 미국정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승만은 식민지시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이나 『평화와 자유』, 『삼천리』, 『동광』, 『개벽』 등 당시 지식인들의 잡지에 그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라는 단파방송을 통해 독립이 도래할 것을 알렸기 때문에 귀국 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았다.⁵²⁾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조선인민공화국, 한민당, 조선공산당 등 좌우파 모두에게 각 당을 맡아달라는 공세를 받았다.⁵³⁾ 그러나 상기한 것처럼 이승만은 분명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은 자신이 출범시킨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하 독촉)의 기치를 ‘임정봉대’로 내세우며 반공노선을 분명히 밝혔고, 11월 7일 재차 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절하게 된다.⁵⁴⁾

52) 이정식, 『해방 전후의 이승만과 미국』,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c), 321-322쪽; 이정식, 『해방 직후 정치 지도자 4인의 성격 구성』,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d), 226-227쪽.

관련기사는 《조선일보》, 1932년 3월 1일자, 1935년 1월 9일자; 《동아일보》, 1932년 2월 10일자; 이승만, 「조선청년에게 축하」, 김동환 편, 『평화와 자유』(삼천리사, 1931); 『삼천리』 제9권 제1호(1937. 1.)(db.history.go.kr/id/ma_016_0610_0040, 검색일: 2017년 11월 6일); 『동광』 제37호(1932)(db.history.go.kr/id/ma_014_0360_0080, 검색일: 2017년 11월 6일); 『개벽』 제62호(1925)(db.history.go.kr/id/ma_013_0610_0030, 검색일: 2017년 11월 6일), 81-83쪽. 인용한 이 잡지에는 당시 저명인사들의 약력(이승만의 경우 스무 살부터 1937년까지 본인의 활동을 간략하게 적고 있다)이나 소식, 그들의 지인이 이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정병준(2005), 앞의 책, 399-401쪽도 참조할 것. 정병준은 이러한 단파방송을 통해 여론 주도층인 좌우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그의 ‘신화화’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53) 김학준, 『북한의 역사(1)』(서울대학교출판부, 2008a), 898쪽;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232쪽;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

54) 김학준(2008a), 위의 책, 900쪽; 정해구(1996), 앞의 논문, 259쪽. 주석 취임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독촉에서 공산당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이승만은 즉각적 독립, 38선 폐지 및 신탁통치 절대 반대의 메시지가 담긴 초안을 준비하여 연합국에 발송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합국에게 보낼 메시지에 대한 박헌영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던 것이다. 양동안, 「45-48년 기간에 있어서 이승만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12월 19일, 이승만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방송담화를 발표한다. ‘비록 모든 공산당이 그러는 것은 아니나, 마치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 있듯이 공산당의 극렬분자들이 독립조국 파괴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싸우자’는 내용은 좌익의 큰 반발을 사게 된다.⁵⁵⁾ 또한 당시 임시정부 측은 이승만이 ‘임정봉대’를 주장했는데도 인민공화국 측과 협작을 노골적으로 전개하여 이승만의 독촉을 고립시키게 된다.⁵⁶⁾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말 발표된 신탁통치 문제는 국내정국을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게 하였고, 이승만은 우익세력에 앞장서 신탁통치 반대를 외친다. 이승만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좌익, 우익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3,000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요구인 자주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⁷⁾ 그러나 좌익 측의 탁치 찬성기조 이후, 한반도의 국내정치 지형은 좌익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우익의 ‘민주의원’으로 크게 양분된 상황이 되고 만다.⁵⁸⁾

그렇지만 당시 반탁운동은 소련의 입장에 배치되는 움직임이었다. 1946년 3월 시작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은 탁치에 반대하는 인사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소 양국의 여러 입장 차이로 결국 공위는 휴회되었다.

제1차 미소공위가 무위로 끝난 후 미군정은 중국에서 시도한 ‘국공합작’ 모형을 기반하여 중간과를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게 된다.⁵⁹⁾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이 생각했던 반공주의 국가구상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공산당과 타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좌우합작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⁶⁰⁾ 이승만이 강조했듯이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3호(2002), 194-195쪽.

55)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자 in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우남실록편찬회, 1976), 122-123쪽.

56) 양동안(2002), 앞의 논문, 196쪽.

57) 《대동신문》, 1945년 12월 30일자 in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우남실록편찬회, 1976), 358쪽.

58) 이주영, 「광복 후의 정국과 분단」, 차하순 외, 『한국현대사』(세종연구원, 2013), 108쪽.

59) 이호재,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法文社, 2000), 301쪽; 이정식·김은순, 「해방정국과 좌우합작」,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 330쪽; 강만길,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 송건호·강만길 공편, 『한국민족주의론 2』(창작과 비평사, 1989), 69쪽.

공산당은 한반도 역시 폴란드와 중국의 내전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⁶¹⁾ 실제로 공산당 주도의 9월 총파업은 이러한 이승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기야 이승만은 지방순회연설 중 정읍에서 “남방만 이라도 임시정부 조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⁶²⁾ 임시정부를 조직한 후 소련철퇴를 위해 세계공론에 호소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발언은 상기한 것처럼 통일 한반도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세계공론에 호소할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세계여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그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이 투영된 발언이었다.

국내적 투쟁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와 결연히 맞서 싸웠고, 그가 추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에 혼연의 힘을 쏟았다. 물론 좌우합작을 통해 미국이 수립하려던 국가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합작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방미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북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상기했듯 이승만의 방미외교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들어 밝혀진 해방 후부터 이승만의 도미 전인 1946년 12월까지 북한의 상황은 이승만의 외교가 적실했느냐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냉전이 종식된 후 밝혀진 것처럼 스탈린은 1945년 9월 지령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하고, 12월에 소련군 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슈킨을 통해 이 지령을 점검함으로써 단독정부 수립의 제반작업을 착착 진행했다.⁶³⁾ 1946년 2월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켜

60) 김용삼(2015), 앞의 책, 468쪽; 양동안(2002), 앞의 논문, 206쪽.

61) 이승만은 11월 21일 ‘공산당에 관한 나의 관념’이라는 성명을 통해 공산분자들은 일인의 재정을 얻어 각 지방에 소요를 일으키며, 외국인을 배척하고 임시정부를 반대할 것이며 중국에는 중국과 폴란드같이 내전의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며 공산당을 비판하였다. 《자유신문》, 1945년 11월 23일자(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11_21_0060, 검색일: 2017년 8월 4일).

62)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자 in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우남실록편찬회, 1976) 400쪽.

63) 9월 지령은 이완범, 「분단국가의 형성 2: 소련점령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⁶⁴⁾ 물론 이 뒤에는 소련이 있었다. 본격적인 토지개혁 전 이미 소련은 소련군정이 기획하고 인민위원회가 집행하는 형식으로 토지문제 개혁을 준비했던 것이다.⁶⁵⁾ 또한 이와 함께 사법제도 및 세제도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⁶⁶⁾ 또한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있는 후 한 달 뒤인 7월 스탈린은 김일성을 지도자로 낙점하기까지 한다.⁶⁷⁾ 그뿐 아니라 이들은 남한의 좌익세력을 통해 좌우합작 저지를 지시했으며, 도출된 합작 7원칙에도 반대하였다.⁶⁸⁾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의 방미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IV. 방미외교와 이승만

이렇게 방미 전의 상황은 이승만이 가진 국가구상 실현과는 괴리된 것이었다. 상기했듯이 미소냉전은 한반도에서 이들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고, 국내정세 역시 미군정의 좌우합작 시도로 이승만계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1946년 11월 22일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한반도의 실정을 알리려 한다는 방미의사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12월 4일 서울을 출발하였다.⁶⁹⁾ 물론 이 방미는 하지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의 의도는 미군정의 입장을 상부에 알리는 것도 있었지만, 이승만의 활동은 하지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음이 중요하다.⁷⁰⁾

120-121쪽에, 12월의 슈킨보고서(북조선 정세에 관한 보고서)는 이지수, 「제2차 세계 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이인호 공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기과량, 2009), 89-92쪽에 발췌 번역되어 있다.

64) 김학준, 『북한의 역사(2)』(서울대학교출판부, 2008b), 197-251쪽.

65) 김국후(2008), 앞의 책, 117-119쪽.

66) 김학준(2008b), 앞의 책, 165-169쪽.

67)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1992a), 앞의 책, 326-327쪽; 김국후(2008), 앞의 책, 209-210쪽.

68) 전현수 편저, 『취먹꼬프일기』(국사편찬위원회, 2004), 17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련 군정문서, 남조선정세보고서』(국사편찬위원회, 2003), 184쪽.

69) 《동아일보》, 1946년 11월 23일자(db.history.go.kr/id/dh_003_1946_11_22_0070, 검색일: 2017년 10월 29일).

70) 하지에 의한 방미제안은 “Syngman Rhee to Hodge”, “Hodge to Goodfellow”,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의사자료집』 28권(국사편찬위원회, 1996), 158쪽, 234-236쪽; 손세일(2015), 앞의 책, 726-727쪽; 정용욱(1995), 앞의 논문, 313-315쪽. 정용욱은

강한 반공사상의 이승만은 여전히 소련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하지의 생각과 다르게 서울 출발 후 잠시 머무른 도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소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은 불가능함을 지적했던 것이다.⁷¹⁾ 오히려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했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방미 전이었던 11월 5일 민주당보다 반공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의회선거 승리가 방미추진에 힘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⁷²⁾

이승만은 이때 도쿄에서 오랜 지인이자 연합국 총사령관인 맥아더를 만났다.⁷³⁾ 반공주의, 기독교를 매개로 이승만과 인연을 이어온 맥아더는 노스웨스트 항공에 특청하여 이승만이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었다.⁷⁴⁾

이승만은 12월 7일 미국에 도착한 후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었다. 조선인의 독립요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조선의 즉시 자주독립이야말로 미소 양군의 철퇴에 관한 교섭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4,000년 역사의 조선은 자신들의 운명을 홀로 자결할 자격이 있고, 이 자결주의를 위해 본인은 생명을 바칠 것이라고 말하였다.⁷⁵⁾ 이것은 당시 조국이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밝힌 그의 자주독립사상이 투영된 발언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그의 반공활동은 계속되었다. 방미 전 남한에서는 입법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45명의 민선의원이

하지의 의도를 상기한 목적과 이승만을 외유시켜 잠시 한국 내 정치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71) *New York Times*, December 6, 1946; 차상철, 『이승만과 하지장군』(백년동안, 2015), 78쪽.

72) 1946년 11월 미 의회선거 결과는 트루먼과 민주당의 패배였다. 공화당은 하원선거에서 249석을 차지하여 184석의 민주당보다 65석을 앞섰다. 또한 상원에서도 51석을 차지해 42석의 민주당보다 9석의 우위를 보였다. *New York Times*, November 7, 1946.

73) 손세일(2015), 앞의 책, 738-739쪽; 김용삼(2015), 앞의 책, 514-529쪽.

74)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중앙일보사, 1996), 40쪽.

75) 《동아일보》, 1946년 12월 11일자(db.history.go.kr/id/dh_003_1946_12_10_0110, 검색일: 2017년 9월 4일). 또한 방미 중인 2월 1일 이승만은 마셜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 루스벨트 대통령 등 열일곱 명밖에 금메달을 받은 바 없는 미합중국 육해군 연합회의에서 메달을 받았다. 관련 기사는 *New York Times*, February 2, 1947. 이승만은 이 협회의 연설을 통해 1776년 미 국민의 열망처럼 조선인도 자치를 원할 뿐이라고 독립의 의지를 밝혔다. 협회에 대한 설명은 손세일(2015), 앞의 책, 752-753쪽. 이 연설은 《동아일보》, 1947년 4월 25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동아일보》, 1947년 4월 25일자(db.history.go.kr/item/level.do?setId=2591&itemId=dh&synonym=off&chineseChar=on&position=376&levelId=dh_004_1947_02_02_0060, 검색일: 2017년 11월 7일).

선출되고 좌우합작위원회는 관선의원 45명을 추천하였다.⁷⁶⁾ 이승만이 방미한 후 하지는 관선의원을 임명하였는데 이 중 좌익계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안 이승만은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임병직을 통해 번스 국무장관에게 보내고, 본인 역시 맥아더에게 같은 내용을 타진한다.⁷⁷⁾ 왜냐하면 그것은 이승만이 생각했던 반공, 민주주의 국가구상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이 외교에서 중점을 둔 것은 긴급한 조선통일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되게 하는 것과 미 당국에 대해 조선정부를 수립, 승인하도록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⁷⁸⁾ 이승만은 이미 해방 전부터 유엔창립 준비에 참여하여 독립국가 수립에 공을 들였을 정도로 유엔을 중요시하였다.⁷⁹⁾ 이러한 이승만의 유엔을 통한 외교지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상기한 것처럼 이승만은 국제정치에서 승인받지 못한 국가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또한 세계여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⁸⁰⁾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유엔에서 미국의 힘도 인지하였고, 한반도 문제를 세계여론에 호소할 필요성도 알았기 때문에, 방미를 통해 유엔총회에 참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승만은 공식자격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76) 이정식, 「해방정국과 좌우합작」,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c), 358-359쪽.

77) “Limb to Byrnes(1946. 12. 12.),” “Rhee to MacArthur(1946. 12. 14.),” 국사편찬위원회 편(1996), 『대한민국사자료집』, 28권(국사편찬위원회, 1996), 172-173쪽.

당시 관선의원 명단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6년 12월 8일자 참조할 것(db.history.go.kr/id/dh_003_1946_12_07_0120, 검색일: 2017년 11월 8일)

78) 《서울신문》, 1946년 12월 10일자(db.history.go.kr/id/dh_003_1946_12_09_0020, 검색일: 2017년 9월 4일).

79) 임병직의 회고에 따르면 1945년 8월 유엔총회 창립준비가 시작되자 이승만은 임병직과 함께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당시 포스트 스트리트의 모리스 호텔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각과 대표자들을 불러 한국 장해문제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산세력과 자유세력을 합한 ‘연립정부안’이 나오자 이승만과 임병직 일행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이러한 주장을 한 이들의 뒤에는 국무부의 알지 히스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일화는 이승만이 이 시기부터 연립정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내부 대립을 우려하여 이승만은 단지 독립국가를 원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임병직, 『臨政에서 印度까지: 林炳稷外交回顧錄』(女苑社, 1966), 274-275쪽.

80) 이러한 그의 유엔 중시 태도는 대통령이 된 이후 승인의외교로 이어진다. 승인의외교에 대해서는 김영호, 「대한민국 정부 승인과 외교 기반 구축」, 김용직 편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체제 구축』(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288-332쪽을 참조할 것.

이승만은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⁸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독립운동기간 인연을 맺었고, 당시 시리큐스 대학교에 재직하던 올리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며 ‘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방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⁸²⁾ 그 위원회에는 이승만의 오랜 지인들인 변호사 존 스태거스(John W. Stagers), 언론인 제이 제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OSS 책임자 프레스턴 굿펠로우(Preston Goodfellow), 미 군정청 사법관 에모리 우달(Emory Woodall) 대령, 미 상원 목사 프레더릭 브라운 해리스(Frederick Harris Brown), 임병직과 임영신이 속해 있었다.⁸³⁾ 이승만은 이들과 함께 정책목표를 마련하여 다음의 6개 조항을 미 국무부에 제안했다.⁸⁴⁾

- 1) 총선거에 의하여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조선의 과도정부를 수립할 것
- 2) 이 과도정부는 미소 양국 간의 교섭을 방해하는 바 없이 점령군과 기타 중요 문제에 관하여 미소 양국과 교섭할 것

81) 손세일(2015), 앞의 책, 743쪽.

82)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250쪽.

83) 존 스태거스와 제이제롬 윌리엄스는 각각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와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 통신의 기자였다. 이들은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독립운동 시 인연을 맺은 인물로 다이쇼 천황에게 보낸 공개서한 작성과 보도에 도움을 주었고, 미국 내 여론 형성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승만은 프레스턴 굿펠로우를 1941년 여름 에슨 게일(Esson McDowell Gale)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게일은 이승만이 한성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조카이며, 루스벨트가 1941년 7월 11일 국가안보 정보수집을 위해 발족시킨 정보조정국(Cordinator of Information, COI)의 중국을 통한 대일정보 수집계획 책임자로 임명된다. 이승만은 이 둘과의 인연으로 COI와도 인연을 맺고, 이후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첩보국, COI의 후신)의 한미 군사합동작전에도 관여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용삼(2015), 앞의 책, 319-322쪽, 434-438쪽을 참조할 것. 또한 프레더릭 브라운 해리스 목사와의 인연은 이승만이 청년 시절부터 감리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 이승만은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YMCA 학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후 1912년 ‘기독교감리회 4년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할 일도 있었다. 해리스는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승만은 하와이를 떠나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동안 해리스와 친분을 쌓았다(유지운, 「F.B. 해리스와 이승만의 관계가 대한민국 건국에 미친 영향」,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제2회 콜로키움 자료집(미간행)』, 35쪽).

84)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7년 2월 12일자(db.history.go.kr/id/dh_004_1947_02_07_0060, 검색일: 2017년 9월 4일). 1월 27일 국무부에 제출한 같은 내용의 문서는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Vincent)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Occupied Areas (Hilldring)(January 27, 1947),” *FRUS*, 1947, 6, pp. 603-605를 참조할 것.

- 3) 조선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일본에 대한 조선의 배상 요구를 속히 고려할 것
- 4) 평등한 지위에서 조선에 통상권을 행할 것
- 5) 국제 위체제도(爲替制度)를 설치하고 통화를 안정시킬 것
- 6) 미국의 보위군(保衛軍)을 미소 양군이 동시 철폐될 때까지 주둔할 것

이승만의 이 6개 조항은 상기한 네 가지 사상이 투영된 것이었다. 또한 이 6개 항목은 이승만이 1946년 3월 19일 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약칭: 민주의원)의 의장으로 공표한 임시정책 대강과도 연관성이 깊었다.⁸⁵⁾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 전 세계 자유국과의 통상 유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실시 등 그의 국가구상이 나와 있던 이 임시정책 대강이 국내 정책도 비교적 소상히 언급된 점에 비해 방미외교에서의 항목은 외교 조항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승만은 이 외교에서 국내적 측면보다는 국외적 측면을 더 고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조항은 이승만이 궁극적으로 총선거에 의한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가 해방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인 미소 양국과 직접교섭은 이승만의 자주독립사상이 투영되었다. 다음으로 국제 위체제도를 통해 통화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조선이 자유경제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의 경제사상이 반영된 조항이었다.

마지막 항목은 그가 1월 29일 주장한 ‘조선부흥안’의 다섯 번째 조항인 미소 양군 동시 철폐 주장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⁸⁶⁾ 왜냐하면 만일 양국이 동시에 철군을 하면 좌익은 더 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지

85) 임시정책 대강 전체 내용은 《조선일보》, 1946년 3월 19일자를 참조할 것(db.history.go.kr/id/dh_002_1946_03_18_0070, 검색일: 2017년 8월 25일). 또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유영익(2006), 앞의 논문, 492-498쪽을 참조할 것.

86) 나머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소 양측과 조선문제에 관하여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조선의 부흥을 조력하기 위하여 조선의 대일배상 요구를 즉시 齎讓할 것, 3) 조선에 충분한 상업상의 권한을 부여하여 여하한 국가에도 일방적 은전을 수여치 말 것, 4) 조선의 통화를 안정시키고 國際爲替에 입각하여 환산율을 결정할 것(《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7년 1월 30일자, db.history.go.kr/id/dh_004_1947_01_29_0060, 검색일: 2017년 8월 29일). 미소 양군 철퇴주장은 뉴욕 타임스에도 보도되었다(New York Times, January 29, 1947). 또한 그는 이미 10월 29일 ‘유엔에 보내는 결의문’을 통해 미소 양국 군대의 조선에서 철퇴를 주장한 바 있었다(《동아일보》, 1946년 11월 6일자(http://db.history.go.kr/id/dh_003_1946_11_05_0020, 검색일: 2017년 8월 24일)).

못하게 되고, 이것은 당시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승만 및 우익에게는 오히려 좌익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반도 문제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⁸⁷⁾ 그런데 미소 동시 철군은 사실상 신탁통치 안의 철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자주독립국가를 이룰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승만의 반소·반공 기조를 찬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하며 반탁운동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여 미소 협상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다.⁸⁸⁾ 또한 이승만은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사상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 전까지 미국의 주둔을 요구함으로써,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모습도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당시 미국정부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위층 인사를 만나려 할 때마다 미 국무부 관리의 개입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고, 고위층에 많은 전문을 보냈음에도 정작 그가 만난 미국정부의 관리들은 맥아더의 친구 미 국무부 점령지역 담당 차관보였던 힐드링뿐이었다.⁸⁹⁾ 결국 그의 사상이 투영된 외교는 당시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고, 과도정부 수립 등의 목표는 달성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바로 한국문제 해결에 유연활용에 대한 언급 및 논의가 이 방미기간에 처음으로 미국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방미 중인 1월 20일 맥아더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문제를 말하며 소련이 철군하지 않을 경우 유엔에 호소하여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⁹⁰⁾ 그런데 1월 27일 극동국장 빈센트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망록에 소개된 맥아더의 전문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네 가지’ 가운데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 첫 번째 항목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⁹¹⁾ 당시 빈센트는

87) 이현경, 「해방 후 남한 정치세력의 외국군에 대한 인식과 양군철폐논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권 1호(2005), 45쪽.

88) 이호재(2002), 앞의 책, 289-290쪽.

89) 손세일(2015), 앞의 책, 748쪽. 이승만은 방미기간 미 대통령 트루먼, 마셜 국무장관, 린스 국무장관 특별보좌관, 폴리 전쟁배상위원회 미국대표 등에게 전문을 보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편,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4-1948』[Korea(South) : Institute for Modern Korea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9]. 565-588쪽을 참조할 것.

90) “Syngman Rhee to Douglas MacArthur(1947. 1. 20.)”,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편(2009), 위의 책, 574-576쪽.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이었고 미소 간의 합의를 중요시한 인물이었지만, 그 역시 맥아더의 제안인 유엔회부, 미국정부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이나 미·영·중·소 사이의 추가 회담 같은 권고도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엔활용에 대한 사항은 2월 25일 ‘부처 간 특별위원회 비망록’에서도 나오게 된다.⁹²⁾ 비록 이승만의 유엔활용 주장이 이들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유명익의 평가처럼 최초 발안(發案)자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⁹³⁾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소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하지가 이승만의 방미 시 미국으로 소환되어 당시 한반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던 미소 양측 교섭이 실패하였다는 점과 소련이 북쪽에 50만 병력의 군을 조직한 것이 사실로 생각된다는 점, 그리고 철군이 소련에 의한 한반도 지배 등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임을 말했던 것이다.⁹⁴⁾ 이것은 당시 이승만이 남한의 공산화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미외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승만이 염려했듯이 그의 방미기간 동유럽과 발칸반도에서의 소련의 혁명 수출 공세 등 소련의 팽창은 계속된다. 소련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 안에서의 반소-반공여론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승만의 반공우세가 미국정계의 일부 인사나 언론계에 호의적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불리한 상황의 그에게 하나의 수확이었다.⁹⁵⁾ 또한 때마침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은 이승만의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트루먼 독트린에 환영의 뜻을 보인 이승만은 이후 4월 5일 미니아폴리스를 출발, 도쿄와 난징(南京)을 경유하여 맥아더, 그리고 장제스(蔣介石)와 회담을 한다.⁹⁶⁾ 철저한 반공주의자 인사를 만나 지지를 확보한 것은

91)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Vincent) to the Secretary of State(January 27),” 1947, *FRUS*(1947. 6.), pp. 601-603, 특히 p. 601.

92) “Memorandum by the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February 25),” *FRUS*(1947. 6.), pp. 608-618. 특히 p. 610.

93) 유명익(2006), 앞의 논문, 505쪽 각주 44.

94) *New York Times*, February 25, 1947;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7년 2월 26일자(db.history.go.kr/id/dh_004_1947_02_25_0060, 검색일: 2017년 10월 29일); 차상철(2015), 앞의 책, 80-82쪽.

95) 양동안(2002), 앞의 논문, 209-210쪽.

이승만의 반공,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이 반영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4월 21일 귀국한 이승만은 이틀 뒤인 4월 23일 총선거의 필요성, 미국의 정책변화, 과도정부 수립을 거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첫 성명을 발표했다.⁹⁷⁾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대소정책은 강경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소련과의 협력을 시도한 미국은 이승만의 방미 직후인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위를 재개하게 된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공위의 재개는 이승만 외교의 적실성을 말해주게 되었다. 제2차 미소공위 중에 소련은 이승만의 주장처럼 타협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⁹⁸⁾ 7월부터 서서히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련과의 타협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⁹⁹⁾ 이것은 비록 미국의 군사전략적 관점이 반영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사상을 기반으로 소련과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 이승만의 외교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방미의 교를 통해 확실한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한 이승만은 이듬해 총선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96)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2002), 앞의 책, 255쪽; 손세일(2015), 앞의 책, 758-760쪽. 장제스와의 회동내용은 《동아일보》, 1947년 4월 15일자(db.history.go.kr/id/dh_004_1947_04_13_0030, 검색일: 2017년 10월 27일).

97) 《경향신문》, 《조선일보》, 1947년 4월 26일자(db.history.go.kr/id/dh_004_1947_04_23_0090, 검색일: 2017년 8월 1일).

9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May 30, 1947)," *FRUS*(1947, 6.), pp. 656-65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July 4, 1947)," *FRUS*(1947, 6.), pp. 688-689;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July 16, 1947)," *FRUS*(1947, 6.), pp. 704-707.

99) "Memorandum by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 (Allison)(July 23(추정), 1947)," *FRUS*(1947, 6.), pp. 713-714; "Memorandum by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 (Allison)(July 29, 1947)," *FRUS*(1947, 6.), pp. 734-736;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August 18, 1947)," *FRUS*(1947, 6.), pp. 755-756.

V. 맺음말

이승만 방미외교의 기존연구는 단순히 그 원인을 국내적, 또는 국제적 측면에서만 파악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적 범주도 해방 이후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외교는 그의 핵심사상, 국가구상과 결부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이승만은 구한말부터 자주독립사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사상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는 강한 반러성향으로부터 출발한 반공사상, 힘의 논리와 세계여론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며 자주독립을 꾀했지만, 해방 후 한반도의 상황은 그것과 괴리되었다. 해방의 주역인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또한 국내 상황 역시 이승만의 국가구상이 실현되기는 힘들었다. 좌익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이승만과 대립했고, 미소공위의 소련은 이승만을 비롯한 신탁통치 반대인사들을 배제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좌우합작이나 미소공위를 통한 통일정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소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공국가 건설을 위해 방미하였다. 실제로 당시 북한의 상황은 소련의 통일한반도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방미 후 평소 그의 자주독립, 자유민주주의, 반공,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이 투영되는 주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는 이승만의 외교를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방미 후 재개된 제2차 공위에서 결국 미국과 소련은 합의하지 못했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서 해결점을 찾게 된다. 이승만의 방미외교는 그의 네 가지 핵심사상이 근간이 되었으며, 당시 국제정치 상황을 포착한 기민한 외교로서 이후 그가 원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경향신문》, 《대동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신한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개벽』, 『동광』, 『삼천리』, 『평화와 자유』.

FRUS.

2. 단행본

가브리엘 코르토코프 저, 어건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1)』. 동아일보사, 1992.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사자료집』 28권. 국사편찬위원회, 1996.

_____. 『소련군정문서, 남조선정세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2008.

김동환 편, 『평화와 자유』. 삼천리사, 1931.

김영호,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2』.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5.

김용삼, 『대한민국 건국의 기획자들: 이승만 인맥을 중심으로 본 건국 전후의 비화(秘話)』. 백년동안, 2015.

김학은, 『이승만의 정치·경제사상: 1899-1948』.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학준, 『북한의 역사(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a.

_____, 『북한의 역사(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b.

로버트 올리버 저, 황정일 역, 『이승만』.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리승만,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1993.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6권[제3부 어떤 나라를 세울까 1945-1950(I)]. 조선뉴스프레스, 2015.

송남현, 『解放三年史(1)』. 까치, 1985.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편,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4-1948. 7.』. Korea(South):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9.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우남실록편찬회, 1976.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_____, 『(건국대통령) 이승만: 생애·사상·업적의 새로운 조명』. 일조각, 2013.

이정식,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배재대학교출판부, 2005.

_____,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이주영,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김&정, 2008.

이춘근,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글마당, 2012.

이한우,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10.

이호재,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法文社, 2000.

임병직, 『臨政에서 印度까지: 林炳稷外交回顧錄』. 女苑社, 1966.

전현수 편저, 『쉬띠꼬뜨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 中央日報社, 1992a.

_____,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中央日報社, 1992b.

차상철, 『이승만과 하지장군』. 백년동안, 2015.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중앙일보사, 1996.

Kennan, George Frost, *Memoirs(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Mastny, Vojtech, *The Cold War and Soviet insecurity: the Stalin yea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New York: London and Edinburgh, 1941.

_____,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Seoul: Kwanksa, 2004.

Truman, Harry S.,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 1*. New York: A Sigent Book, 1955.

U.S. Department of State, *FRUS Diplomatic Papers, 1945, Vol. 6: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_____, *FRUS 1947, Vol. 6: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Yergin, Daniel, *Shattered Peace*. Boston: Houghton Mifflin, 1977.

Zubok, Vladislav M. and Pleshakov, Konstantin,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3. 논문

강만길,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 송건호·강만길 공편 『한국민족주의론 2』, 창작과 비평사, 1989, 108-136쪽.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 한길사, 1995, 360-392쪽.

김병섭·김정민, 「위싱턴회의 시기 이승만의 외교활동과 신문 스크랩, 1921-1922」.

-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 2017, 175-198쪽.
- 김영호,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권 1호, 2016, 5-32쪽.
- 김용직,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69-99쪽.
- 김재호,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경제적 기초와 근대적 재정제도의 성립」. 김용직 편,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97-165쪽.
- 송복, 「이승만의 저술 활동과 역사적 의미」.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28쪽.
- 양동안, 「45-48년 기간에 있어서 이승만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5권 3호, 2002, 187-227쪽.
- 오영섭, 「이승만의 『청일전기』 번역·간행과 자주독립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29-68쪽.
- _____, 「이승만 연보」. 2012. syngmanrhee.yonsei.ac.kr/files/chronology.pdf, 1-9쪽.
- 유영익, 「3.1 운동 후 서재필의 신대한(新大韓) 건국 구상」. 서재필기념회 편, 『서재필과 그 시대』, 서재필기념회, 2003, 325-402쪽.
- _____,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475-576쪽.
- 유지윤, 「F.B. 헤리스와 이승만의 관계가 대한민국 건국에 미친 영향」.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제2회 콜로키움 자료집(미간행)』, 31-47쪽.
- 이승만, 「공산당의 당부당」. 『태평양잡지』 제31호, 1923, 16-18쪽.
- _____, 「조선청년에게 축하」. 김동환 편, 『평화와 자유』, 삼천리사, 1931, 80-82쪽.
- _____, 「일민주의정신과 민족운동」.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一民主義普及會, 1954, 8-16쪽
- 이완범, 「분단국가의 형성 2: 소련점령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95-122쪽.
- 이정식, 「건국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a, 29-71쪽.
- _____, 「스탈린의 한반도정책, 1945」.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b, 178-214쪽.
- _____, 「해방 전후의 이승만과 미국」,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c, 292-325쪽.
- _____, 「해방 직후 정치 지도자 4인의 성격 구성」.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 일조각, 2006d, 223-262쪽.
- 이정식·김은순, 「해방정국과 좌우합작」.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326-371쪽.
- 이주영, 「광복 후의 정국과 분단」. 차하순 외, 『한국현대사』, 세종연구원, 2013, 102-119쪽.
- 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이인호 공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기과랑, 2009, 55-92쪽.
- 이헌경, 「해방 후 남한 정치세력의 외국군에 대한 인식과 양군철폐논쟁」. 『한국정치 외교사논총』 27권 1호, 2005, 35-74쪽.
- 장규식, 「『한국교회핍박』에 나타난 이승만의 기독교입국과 외교독립 구상」.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45-178쪽.
- 정용욱,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와 미국의 대응」. 『역사비평』 30권, 1995, 309-332쪽.
-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역사비평』 32호, 1996, 252-288쪽.
- 차상철, 「외교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155-188쪽.
- 최상오, 「이승만의 경제구상」. 최상오·홍선표 외,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65-122쪽.
- 최정수, 「이승만의 『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중립론』과 외교독립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01-143쪽.
- Parrish, Scott, "A DIPLOMAT REPORTS," *CWHP Bulletin Issue*, 1, Spring 1992, 16, 21-22쪽.

4. 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뉴욕타임스(nytimes.com)
- 우드로 윌슨 센터 다국적 냉전사 연구기획(wilsoncenter.org/digital-archive)

국 문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이승만의 방미외교를 국내정치적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외교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만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교는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국가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이승만은 그의 핵심사상인 자주독립,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반공, 그리고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사상에 근거하여 방미외교를 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심화로 자주독립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북쪽에서 소련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 미소공위의 결렬, 좌우합작 시도 등도 이승만이 가진 국가구상 실현을 힘들게 했다. 이에 이승만은 방미하여 그의 사상에 기반한 외교를 행했다. 냉전의 심화와 맞물린 외교를 통해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초석을 쌓게 되었다.

투고일 2017. 9. 17.

심사일 2017. 9. 29.

게재 확정일 2017. 11. 27.

주제어(keyword) 이승만(Syngman Rhee), 방미외교(Diplomacy in Americ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사상(thoughts), 국가구상(Nation building plan), 냉전(Cold War)

Abstracts

The Re-evaluation of Syngman Rhee's Diplomacy in Americ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In Connection with his Ideology

Yoo, Na-young

This article aims to re-evaluate Syngman Rhee's diplomacy in Americ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Past studies evaluated the subjec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his diplomacy needs to be re-evaluated by connecting Syngman Rhee's ideology and nation building plan. Syngman Rhee carried out his diplomacy based on his core ideologies of independence, liberal democracy, liberal economics, anti-communism, and realistic international politics. After liberation, independence was difficult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s attempts to establish a separate government in the north, the breakdown of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s efforts to establish a Left-Right Coalition made Syngman Rhee's nation building plan difficult. As a result, Syngman Rhee went to America and tried to conduct his diplomacy based on his ideologies. In an era of intensification of the Cold War, Syngman Rhee laid the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liberal democratic nation in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his diplomacy.